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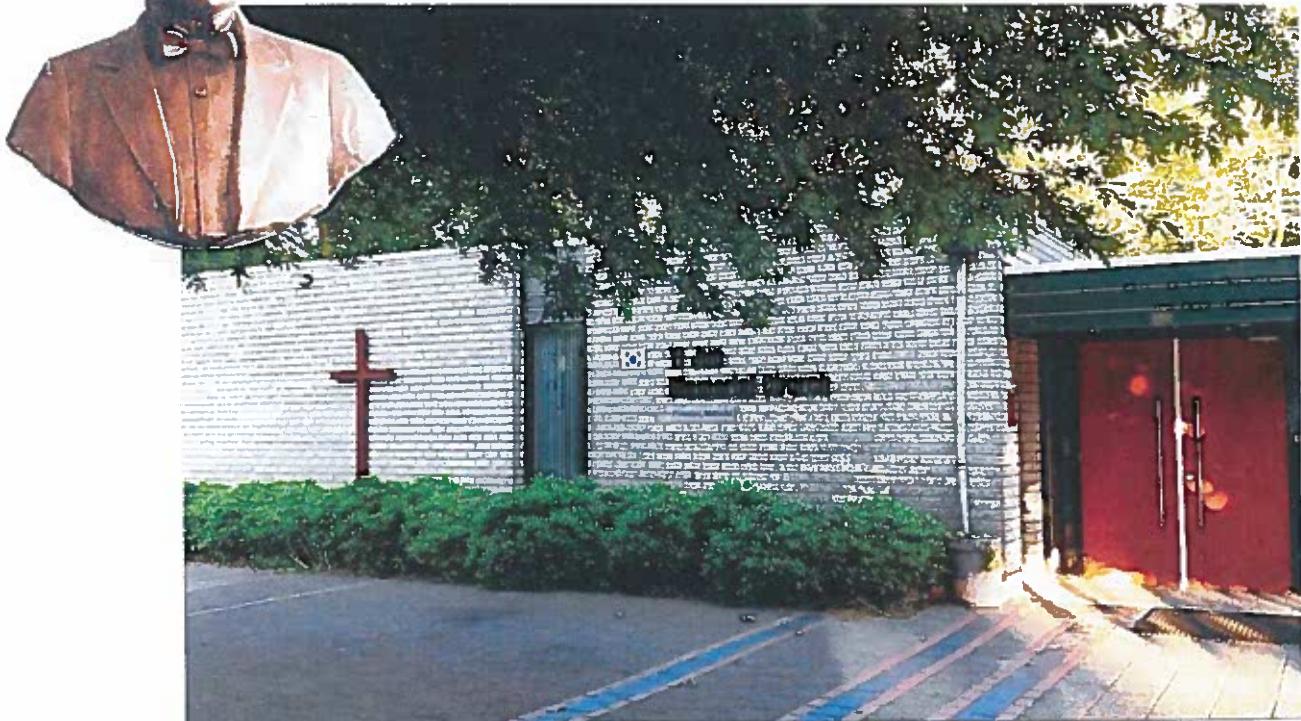
광복 70년 한민족 축전

〈 1945.8.15 – 2015.8.15 〉

이준열사 순국 108주기 추모. 이준열사기념관 개관 20주년 기념

The 70th Year Ceremony of Korean Liberation

광복 70년!



날 자 : 2015년 8월 15일, 토요일

장 소 : 이준기념교회 Yi Jun Memorial Church

Prinsenhof 8, 2263 EV Leidschendam,

070 317 7789, 070 216 2968, 06 4023 6099

[헤이그 중앙역-6번 전차-Leidschendam noord]

특별 후원 :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주 관 :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 Yi Jun Peace Museum

후 원 :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 네덜란드한인회. 벨지움한인회.

상사협의회. 경제인회.



애국가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2절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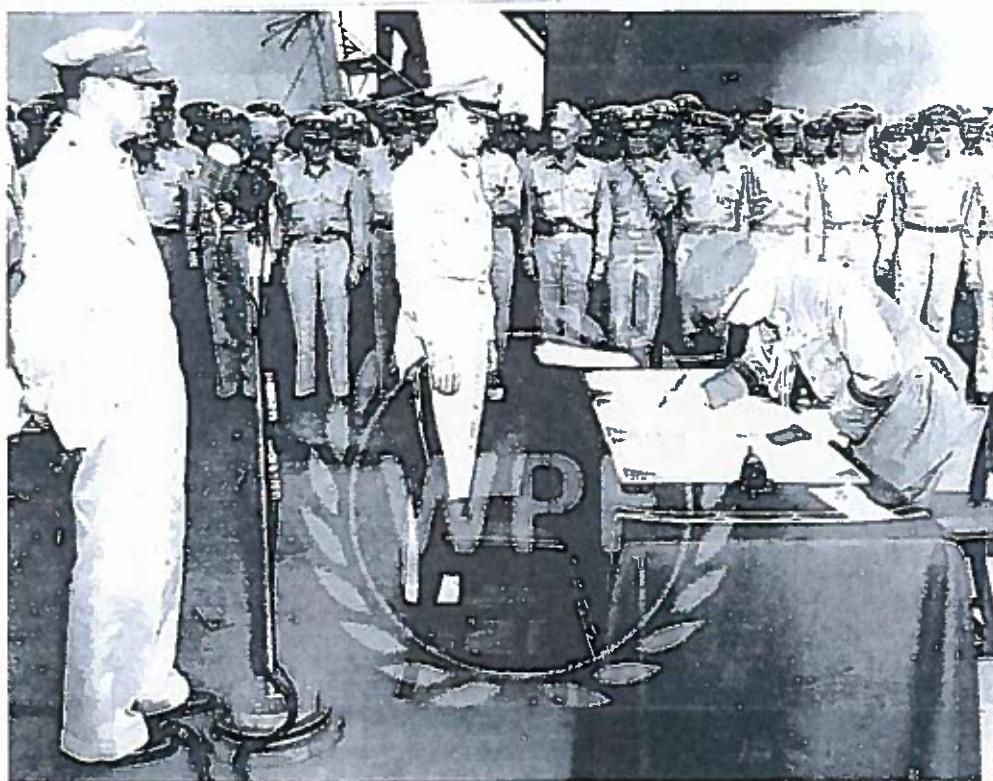
4절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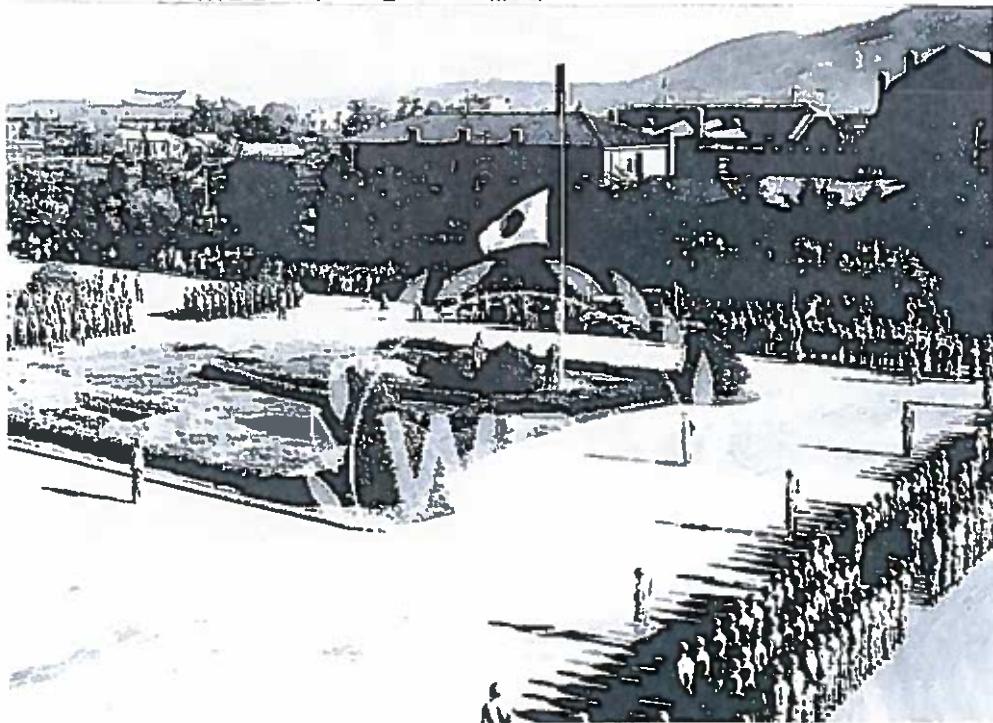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광복 70주년 기념 역사 탐방

〈일본 항복〉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항복하고,
9월 2일에 미 전함 미주리호 선상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서
태평양전쟁은 끝났다.
사진은 일본군을 대표하여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우메초 요시자로
일본 육군 참모총장으로 그는 항복에 문한 듯한 행동을 하였다.
(맞은편에 맥아더 원수가 서 있다.)



일본군 항복-국기하향식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마침내 패망하고 한국은 해방을 맞이하였다.
사진은 38선 이남에 진출한 미24군단의 지휘관인 존 하지 중장의 참관
하에 1945년 9월 10일 일본 국기가 하양되는 모습이다.

〈한국의 해방과 그리고 분단, 짧은 기쁨, 기나긴 한숨〉



1945년 9월 16일, 부산 지역 학생들과 보이스카우트 회원들이 시민들의
환영 완호 속에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아! 38선 〉

38선은 1945년 7월 17일 ~ 8월 2일 독일 베를린 교외의 포츠담에서
논의된 미소(美蘇) 간에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편의적인
군사분계선의 의미를 가진 경계선이었다.

알 릴

추가 문화행사

1. 한·일 친선 합동연주 :

Recorder Flute: 권민석(한국), Clarinet: 배성온(한국),

Recorder Flute: Fumitaka Saito(일본), Traverso Flute: Thaiko Ito(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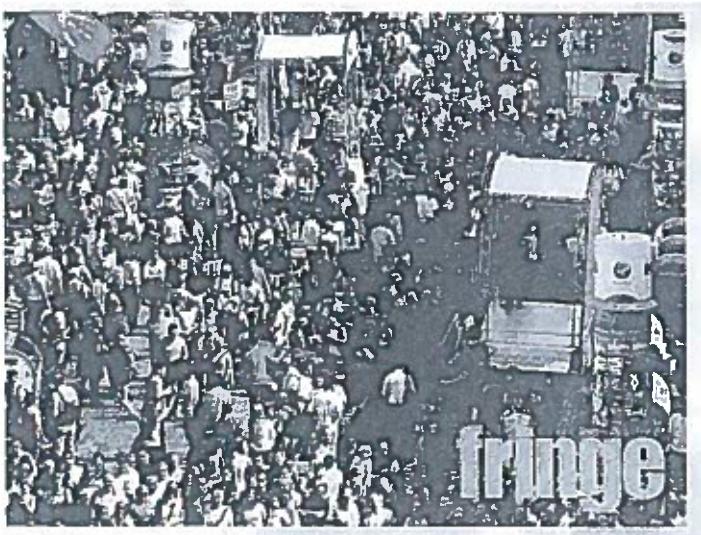
2. 한국전통음악 및 퓨전음악 공연 :

북 공연, 무용, 연주 The Land of Korea, Peace Arirang, The Voyage

Scotland 수도 Edinburgh에서 해마다 8월 개최되는 "Edinburgh Festival Fringe" 예술축제 중 Assembly Hall(국회의사당)에서 공연키로 선발된 한국공연단 '아름다운 공연 PAN (The Beautiful Performance PAN)'이 한국혼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팀이 네덜란드에서 거행되는 "광복 70년 한민족 축전"에 특별출연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The Edinburgh Festival Fringe is
the largest arts festival in the world and
takes place every August for three weeks
in Scotland's capital city.

AtoBiz co.,Ltd & Assembly Festival are
pleased to select the five beautiful shows
to form a part of this year's special programme
'Korean Season' in Assembly as part of the
Edinburgh Festival Fringe 2015.





광복 70년 한민족 축전

〈 1945.8.15 – 2015.8.15 〉

이준열사 순국 108주기 추모·이준열사기념관 개관 20주년 기념

The 70th Year Ceremony of Korean Liberation

날자 : 2015년 8월 15일, 토요일

초청의 말씀

INVITATION

다가오는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식민 40년의 억압에서 벗어나 광명을 되찾은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 깊은 날 네덜란드의 중심부에 있는 해이그(Den Haag)와 라이센담(Leidschendam)에서 "광복 70주년 한민족 축전 The 70th Year Ceremony of Korean Liberation" 이 개최됩니다.

네덜란드, 독일, 벨지움 교민들과 유학생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VOKS)들, 입양단체(아리랑) 회원들, 박연과 하엘 고향사람들, 재네덜란드 일본인들,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한류콘(Hallyo Con)" 회원들...등이 참여하는 역사적인 이 자리에 초청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조국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조국을 떠나 해외에 살아도, 조국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 슬픔도 우리의 것이기에, 우리시대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광복 70주년의 잔치를 이 곳 네덜란드에서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날 우리는 광복을 위하여 이 땅에서 순국하신 이준열사 순국 108주기 추모와, 이준열사기념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도 겸하여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날에 거행될 기념행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부, 기념식 : 장소와 시간 .. 이준기념교회 11:00-13:00

Ceremony/Music Yi Jun Memorial Church (free parking)

Prinsenhof 8, 2263 EV Leidschendam

070-317 7789, 070-216 2968, 06-4023 6099

(해이그 중앙역 - 6번 전차 - Leidschendam Noord)

기념식 .. 태극기 입장, 애국가 합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개식사(주최 측),
기념사(대사), 환영사(시장), 축사(본국 축하사절), 축사(무라오카 Leiden대
명예교수), 만세삼창(일동).
문화행사로 어린이 애국가합창, 관현악, 독창/중창, 가야금 연주, 합창,
특별 연주, .. 등.... (식순 및 문화행사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기념식 후 : 참석자 전원 점심 식사 및 친교

Lunch Reception (garden) after ceremony

2 부, 이준열사기념관 방문 : 장소와 시간 13:00-14:00

Yi Jun Peace Museum Visit .. (Parking Bld | Amsterdamse Veerkade)

Wagenstraat 124A, 2512 BA The Hague

070-356 2510, 06-559 753 90, 06-111 423 99

(Leidschendam Noord - Tram 6 - Spui, 해이그 센타)

3 부, 이준열사묘적지 방문 현화 : 장소와 시간 14:30-16:00

Yi Jun Cemetery Visit (free parking, 묘지 내)

Nieuw Eikenduynen 묘지 (Cemetery Name)

Kamperfoelleestraat 2A, 2563 KJ The Hague

(Spui, 해이그 센타 - Tram 2 - Kamperfoelleestraat)

폐회 16:00

특별 후원: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후원 :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 네덜란드한인회, 벨지움한인회,

NL주재상사협의회, NL한국경제인회 ...

주관 :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 Yi Jun Peace Museum

Wagenstraat 124A, 2512 BA The Hague

yijunpeacemuseum@gmail.com , www.yijunpeacemuseum.com

070-356 2510, 06-559 753 90, 06-111 423 99

대한민국 고희송(古稀頌)

“아! 광복 70년”



8·15 광복 직후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부르는 군중.
하지만 일제로부터의 광복은 분단의 시작이기도 했다.

빛을 되찾고

빛을 되찾은 지 70년, 이름 하여 '광복 70년'

아 ! 광복 70년의 태양이 드높이 떠올랐다.

게다소리 현해탄을 넘어가고, 태극기 다시 금수강산에 나부끼니,

빼앗겼던 이름 되찾아, 복남아 금순아 부르며 살아온 70년의 세월.....

70년은 짧고도 긴 세월이었다.

[기미가요.....] 부르던 입으로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목청껏 외치고,

어리등절했던 그 때의 소년들이

어느새 노년의 나이에 들어섰으니,

바람처럼 지나가 버린 꿈 같은 세월이었다.

그러나 그 때의 어른들은 어디 계시나?

베또 싸들고 징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시골의 기차역에서 긴긴 여름날을 보내시던

그 때의 아버지들이 북망산(北邙山)에 누우신지 이미 오래이고 보니,....

아 ! 70년은 길고도 먼 세월이었다.

1945년의 8월, 그 때의 태양은 유난히도 뜨거웠지.....

옥수수 익어 가는 들판을 지나 찌가다비 신고

쫓겨 가던 그 때의 일본사람들,

그들은 이내 정신 차리고 우리 앞에 성큼 나타났다.

우리가 6.25 남침으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이 틈에 돈을 벌어서 그들의 후예들은

오늘 세계 어디서나 일류로 살고 있다.

우리들은 그 동안 무엇을 하였나?.....

서로 눈을 훑기며 미워하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다가 또 싸워야 했던

고달프고 야속한 세월을 살아왔다.

이런 와중에서도 3,000만이 7,000만의 대민족으로 물어나고,

비록 반쪽이나마 가나했던 나라가 제법 살만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을 민족 융성의 운세로만 돌린 것인가,

또는 우리들의 노력 때문이었다고 자만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신(神)을 쳐다 보고

역사(歴史)를 거슬려 선조(先祖)들을 보게 된다.

아! 우리는 손기정이 절규하고, 황영조가 환호했던 유럽의 한 모퉁이에서

불굴의 한국혼(韓國魂)을 만나게 된다.

피눈물 뿌리며,

헤이그의 “뉴 에이크엔다우넨(Nieuw Eijkenduynen Kerkhof)” 공동묘지에

드시던 108년 전의 이준 열사(李準烈士) “왜? 대한제국을 제외시키는가 !....”

세계를 향하여 항의하고 쓰러지신 우리의 님 ! 세계의 얼 !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는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온 용기 있는

한국인의 표상이었고, 악해도 비굴하지 말고, 강하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세계를 향하여 외쳤던 평화의 사도(平和의 使徒) 위대한 세계인(世界人)이었다.

우리는 떳떳하다. 그리고 조국(祖國)은 영원하다.

나라가 약했을 때 목숨을 던지며 싸웠던 위대한 선구자가 있었기에,

그리고 나라가 가난했을 때,

부지런히 일하여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건강한 손과 발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

밤과 낮이 따로 없이..... 옥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열사의 나라에서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예들, 또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그 뿐이겠는가.

나라가 위태할 때마다 불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러기에 약육강식의 식민주의 격랑과 공산주의 침략에서도 조국은 다시 일어나고.

우리 모두는 세계 어디서나 떳떳한 대한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고희(古稀)를 맞으며

70년을 동양에서는 고희(古稀)라고 한다.
그리고 성경도 인간의 수명이 70이라고 했다(시편 90편)
이제 이생의 종착역에 서서 과거 삶의 짜꺼기들을 과감히 씻어 버리고,
닥아 오는 미래의 세계를 위하여 새롭게 거듭나야 하지 않겠는가 !

70년을 지나고서도 아직 우리는 분을 삭이지 못하여 그들을 종종 일본x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제 고희를 맞이하여 그들 이름에서 x자를 빼어 버리자.
그리고 그들도 어차피 신(神)이 우리 곁에 살도록 하셨으니,
이웃사촌 대접은 해주자. 은밀히 경계하면서.....

70년은 또 민족분단의 역사이다.
40년의 외환(外患)을 치르고 나니, 연이어 내란(内亂)이 닥쳐왔다.
아! 10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북녘의 한숨들.....
가까이 두고도 만날 수 없고,
만나서도 굳게 닫은 입들.....
누가 그들의 입에서 인간의 언어들을 빼앗았나.
아니다. 그들은 말하고 있다.
차라리 울부짖고 있는지 모른다.
짐승들처럼 사람 없는 들판이나 바위틈에서.....
아, 그들의 소리가 들려온다.
남녘의 동포들은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
그러나 손을 뻗쳐도 잡을 수 없고,
소리처도 듣는 이 없어.....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밖에 없다.
“그 옛날, 바빌론에 포로 되었던 희브리인에게 70년 만에
해방을 준 하나님이시여!
오늘날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성에도 해방을 선포 하소서 !.....
(현대판) 바로 왕과 느브갓네살 왕이 죽었으니,
그리고 70년의 세월도 지났으니,
이 해가 가기 전에 그 곳 백성들을 해방(解放) 하소서 !
자유케 하소서 !라고,

대한민국 만세 !

대한민국이 만세수(萬歲壽)를 하자면 갈 길이 멀다.
돌아보니 반만년, 내다보니 또 반만년,
아직 먼 여정이 남아 있다.

다가오는 반만년을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
지나온 반만년을 우리는 한반도에서,
단일민족의 전통을 지키며 오순도순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반만년은 우리는 세계 속에서 남들과 서로 겨루며 살아야 한다.

세계화(Globalization) 란 무엇인가 ?
일단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가정하자.
비단 세계화란 말이 아니더라도 7000만으로 불어난 오늘의 많은 한국인들은
비좁은 조상의 땅을 떠나서 해외에 살 수 밖에 없다.
유럽의 학생으로, 아프리카의 선생으로, 그리고 아직도
광대한 아메리카의 개척자로, 또 공산주의로 황폐해진 북방나라들에
복음전도자들로.....
모두들 거기서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개척하며,
세계 어디서나 존경받는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
세계는 아직도 광대하다.
그리고 한국인의 부지런한 손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시대의 어떤 영웅 K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라고 했지 않는가 !

우리는 세계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모두들 꼭 유품으로 살려고 할 필요는 없다.
무슨 일에 종사하던지 그 곳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지혜롭게, 그 사회에 봉사하며 살면 된다.
가령 더 많은 한국 식당들이 세계 곳곳에서 문을 열면 어떨까! 중국 사람들처럼.....
그리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발명한 세계 최고의 별미인 김치와 불고기를
세계인들에게 많이 공급하자.
그렇게 되면 그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돈도 벌 것이다.
굳이 모두가 Made In Korea만 세계에 팔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 분야에선 이미 우리는 성공(?)했지 않았는가 !
50년 전 우리는 가발과 인형 등 보잘 것 없는 물건들을 갖고 세계에 나왔으나,
오늘의 젊은 Korea Salesman 들은 자동차의 본고장 나라에서 자동차(Car)를 팔고,
첨단 Cell Phone를 비롯 다양한 IT관련 최첨단 제품들을 팔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에서 살면서 좀 더 다양한 일터에서 그곳 사람들과 어깨를 겨루고
경쟁 속에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교수, 의사, 변호사, 은행원..... 뿐 아니라 선생, 경찰관, 그리고 목사가 되어, 그곳
사람들을 가르치고 마을을 지키며, 또 세속화된 세계인의 정신을 깨우쳐야 한다.

우리는 비록 조국을 떠니 세계 속에서 살지라도 한국인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한국의 문화와 조상 전래의 가치관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자기를 상실한 민족은 세계 속
에서 낙오자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의 후예들에 대한 민족교육(民族教育)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인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한국학교를 세우자. 이 학교에서 우리는 더 많은 한국인을
길려 내고, 세계의 천재 그리고 우리시대의 영웅들을 기려내야 한다.

시대는 때때로 영웅을 필요로 한다. 우리시대의 영웅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만큼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영웅들이 있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빙곤을 딛고 세계의 산업
국가가 되기까지, 말없이 일한 수많은 산업역군들을 우리시대의 영웅이라고 말한 사람은
몇이나 되나 ?.....

남동생은 꼭 공부시켜야 한다고, 단보장을 쌌던 앞집의 금순이, 가난한 아버지 돋겠다고
집을 나섰던 뒷집의 철수..... 전국의 수많은 금순이와 철수가 도시의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들 오늘의 영광스런 조국, 자랑스런 대한한국은 과연 있었겠는가 !.....

우리는 흔히들 선인(先人)들에게서 별로 물려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 왜 없는가? 수려한
금수강산에 민족의 정기(民族精氣)를, 이상과 같이 역경을 극복하는 강인한 의지와 희생
정신을 물려받지 않았는가 ! 이것이 한국의 정신이요, 남이 갖지 못한 민족의 자산이다.

한국의 해외 인구가 이미 700만을 넘어섰다. 인구비율로 유태인 다음으로 이미 세계국가
가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일천한 해외경험으로 삶의 지혜가 모자란다.

우리는 유대인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들은 세계 어디서나 공회당(Synagogue)을 세우고,
그 곳에서 랍비(Rabbi)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만이 갖고
있는 한국인의 장점과 유대인의 장점을 소화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어 이를 우리 후대
에까지 이어 준다면 비록 우리가 해외에서 살더라도, 우리 모두는 삶의 보람을 맛보며 자
랑스런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조국(祖國)대한민국은 만세수(萬
歲壽)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

조국광복 70주년에 해이그에서 이기항

필자 주 1 :: 저는 9살 소년의 나이에 조국의 북녘 땅에서 해방(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 때 민주에 실던 일본 사람들이 한만국경을 넘어 도보로 우리나라를
기쳐 일본으로 가는 모습(그 치령한 때진국민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 몇 가지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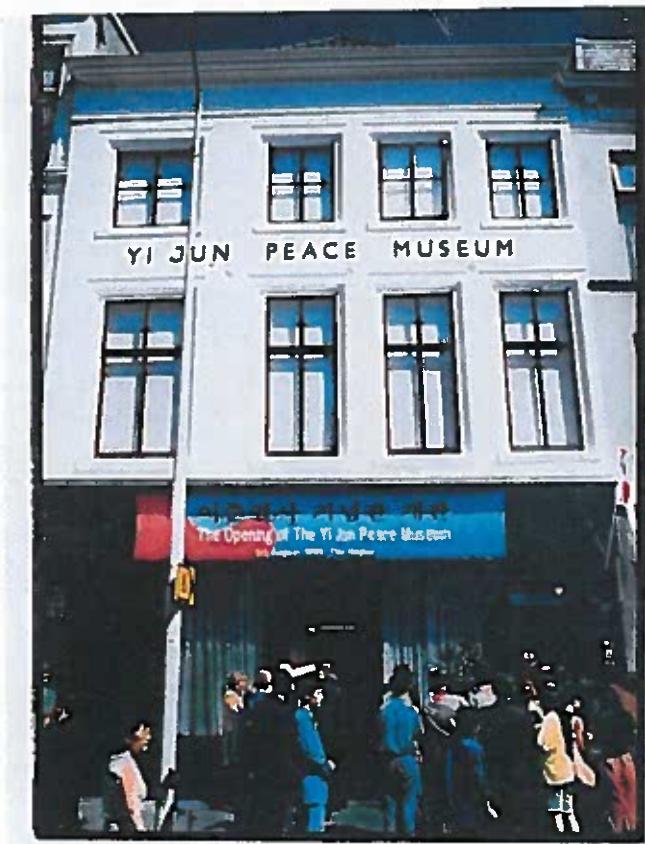
게다 ... 일본인의 여름 니막신. 기미가요 ... 일본 국가. 벤또 ... 일본 접시반.
찌가다비 ... 발가락이 갈리지는 신발

주 1 ::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400년 간 억압했던 애굽 왕이고.

느브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70년 간 포로로 학대했던 바벨로니아 왎이다.

이준열사와 이준열사기념관 Yi Jun Peace Museum

Wagenstraat 124/124A, The Hague, The Netherlands



1907년 7월 14일 이준열사는 그 당시 Hotel De Jong 이던 이 집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사진 원쪽)

1995년 8월 5일 순국88년 만에 그 집이 이준열사기념관 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진 오른쪽)

1995년 8월 5일 이준열사기념관 Yi Jun Peace Museum 개관



흉상재막식: 오른쪽부터 황창평 국가보훈처장, Dr. Havermans 헤이그 시장 부부, 송창주 관장과 외 손녀 유성천 여사, 그 뒤 최창규 독립기념관 관장, 흉상, Hamel가네기재단 사무총장, 김재 순 전국회의장, 이기방 원장, 흉상 작가 백문기 교수. (순국하신 방에서)



개관식 Tape Cutting 장면

왼쪽부터: 황정현 전경련부회장, 정달영 한국일보 상무, 최정호 교수, 최병렬 서울 시장, 이동학 상동 교회 목사, 김재순 서울대 총동창회장, 임인조 대사, 황창평 국가보훈처장, 최창규 독립기념관장, 손봉호 교수, Boys Scout 단장. (기념관 정문을 향하여..)

이준열사기념관을 다녀간 내일의 애국자들



1996년 8월 15일,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개교 후 첫 광복절을 맞아 최명재 이사장 인순 하에 전교생과 교사들(80명)이 한복 입고 이준열사기념관을 찾아와 民族精神 교육을 받음.
2006년 또다시 동교생 70여명이 두 명의 교사 인순 하에 이준열사기념관을 찾았다.



이준열사와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돌아간 대한의 새싹들.
이들은 내일의 애국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08년 5월 10일 토요일 우리신문 제201호

빌레펠트한글학교, 이준 열사 기념관으로 수학여행 다녀왔다



비록 해외에서 자라고 있지만 이들 어린가슴 속에 이준열사의 애국혼을 심어주면,
이들도 조국을 사랑하는 내일의 애국자가 될 것이다.

묘적지 참배(1995.8.5)



<사진> 위-헤이그 이준일사 묘적지(1907-1963 물려 계심). 현재 수유리 묘소에 명면하심. 중-황창평 국
가보훈처장이 정부를 대표하여 참배함. 하-일사의 외손녀 유성천 여사와 송창주 관장, 그 뒤
김재순 국회의장, 임인조 대사, 최창규 독립기념관장

반기문 UN사무총장 부부 이준열사 묘적지 참배

〈2013.8.28.〉



UN 역사상 사무총장의 한국의 선열 묘적지 참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모두 한마리 작은 비둘기 되어,
東으로 東으로 날아가자,
월계수 일에 물고 태극성(太極星) 떠모르는
평화의 나라, 영원한 우리의 祖國으로...

(Peace 앤 Peace 는, 불교서 시낙 대통령과 낚이공학국
만명나 대통령이 각각 자국어로 쓴 친필 '평화' 서호이다)

광복 70주년. 이준열사 순국 108주년.
이준열사기념관 개관 20주년. 기념식

광복 70년 한민족 축전

〈 1945.8.15 – 2015.8.15 〉

글 및 편집 : '광복 70년 한민족 축전' 준비위원장 이기항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
YI JUN Peace Museum
2015년 6월 20일

Wagenstraat 124A
2512 BA The Hague
The Netherlands

Tel.: 070-356 2510. 06-559 753 90. 06-111 423 99
E-mail: yijunpeacemuseum@gmail.com
WebSite: www.yijunpeacemuseum.com

assembly

KOREAN SEASON

burgh Festival Fringe
JG. ~ 31. AUG. 2015

I: Beautiful Tradition

TO: Karma_season 3.

rush: Family Show

le Day: Physical Thea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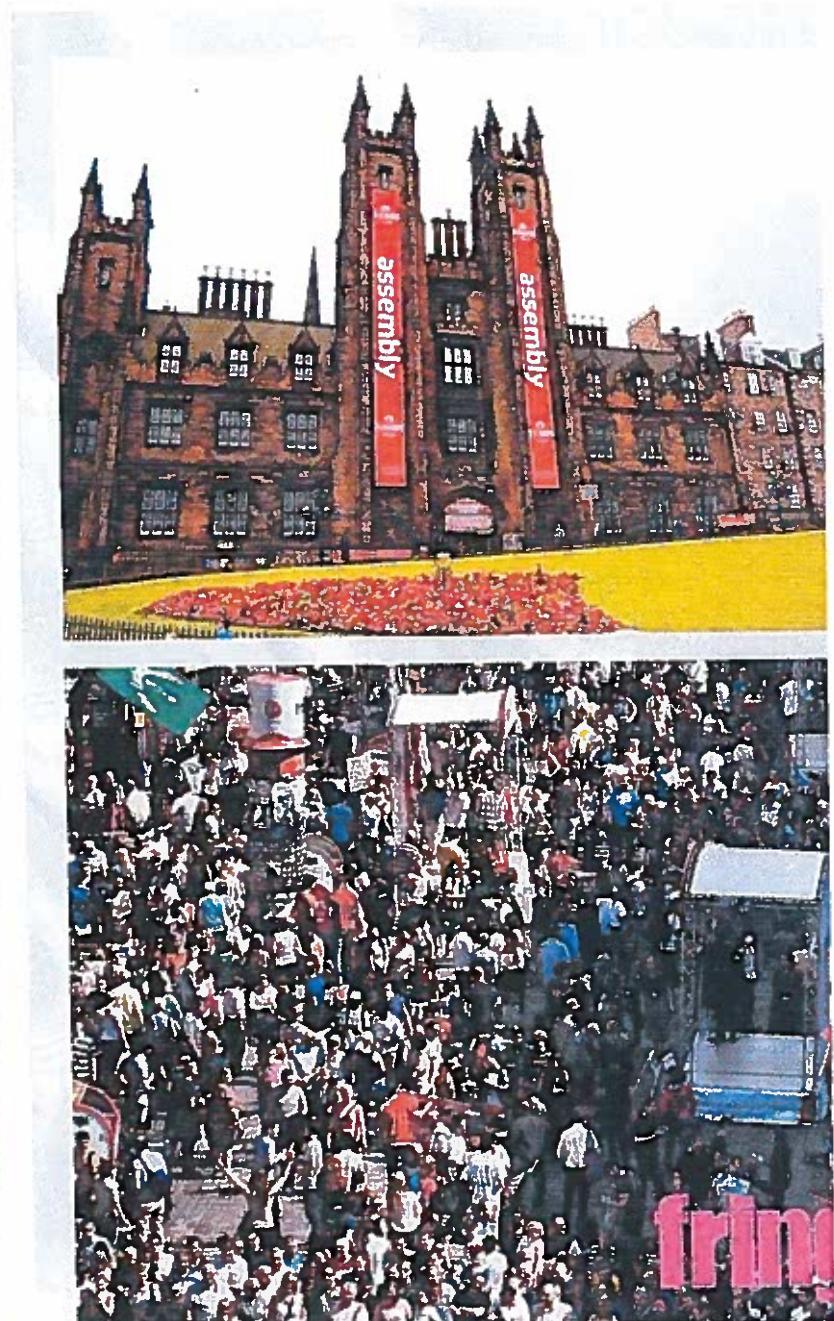
odo: Paradise Lost

www.atobiz.co.kr

www.assemblyfestival.com



Korea Tourism Development Institute



The Edinburgh Festival Fringe is the largest arts festival in the world and takes place every August for three weeks in Scotland's capital city.

AtoBiz co.,Ltd & Assembly Festival are pleased to select the five beautiful shows to form a part of this year's special programme 'Korean Season' in Assembly as part of the Edinburgh Festival Fringe 2015.

Presented by _ AtoBiz Co.,Ltd. Assembly Festival Ltd.

